

홈 > 뉴스 > 기획 > 신탐라순력도

세화1리의 명물 "금귤을 아시나요"

농가 20곳에서 금귤 재배...도내 최대 생산지로 부각

데스크승인 2014.03.31 좌동철 기자 | roots@jejunews.com



▲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1리 무가온 하우스에서 여성 농업인들이 껙강을 수확하고 있다.

흔히 '껙강'이라 불리는 금귤은 껍질 채 한 입에 속 먹을 수 있는데 새콤달콤한 맛이 일품이다. 열매는 비타민C가 풍부해 감기에 탁월한 효능을 보이고 있다.

감귤류 중 가장 작은 금귤은 1990년대까지 많이 재배됐으나 한라봉 등 만감류에 밀리면서 생산량이 줄고 있다.

반면 세화1리는 금귤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이 마을에선 20개 농가에서 금귤을 재배해하면서 도내 최대 산지이자 생산량을 자랑하고 있다.

1kg에 5000원대에 출하되면서 가격도 좋은 편이다. 최근 선물용으로 인기를 끌면서 농가에 짝짤한 소득을 안겨주고 있다.

무가온 하우스에서 생산되는 세화1리 금굴의 자량은 무농약으로 재배하는 데 있다. 바로 따서 먹을 수 있어 친환경 감귤로 인증을 받았다. 다만, 작은 열매를 따기 위해 일손이 많이 가는 단점이 있다.

예전에 마을 주민이 기증한 금굴은 표선리 일주도로 매봉 삼거리 인근에 식재돼 금굴나무거리가 조성되기도 했다.

최근 수확작업에 나선 강인숙씨(56·여)는 “마을에서 생산되는 깡깡은 무농약으로 재배되면서 바로 따서 먹을 수 있고 새콤달콤한 맛이 일품”이라며 “친환경 감귤류인 깡깡이 옛 명성을 찾을 수 있도록 정성껏 키워나겠다”고 말했다.

© 제주신보(<http://www.jeju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